

보도일시 (인터넷) 2025. 11. 2.(일) 11:00,
(지면) 2025. 11. 3.(월) 조간

배포 2025. 10. 31.(금) 오후

파고 높아지는 겨울 바다, 연안여객선 안전부터 점검합니다

- 11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12일간 관계기관 합동 여객선 전수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12일간 전국의 연안여객선 141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민안전감독관 등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여객선의 운항 안전과 여객 안전관리 분야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등 선박 소방설비 관리, ▲여객선 내 전열·난방기구 사용 실태, ▲전기차 선적 안전관리, ▲화재 시 선원의 대응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 중 확인된 여객선의 결함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12월 1일 전까지 보완하여 겨울철에도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안전한 여객 수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난 상황”이라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겨울철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김근령 (044-200-5738)
			해사안전감독관	장종휘 (044-200-5761)



↑ 구명뗏목 외관 점검



↑ 기관실 누유 여부 점검



↑ 수동 화재 알람 작동 점검